

• 고린도전서 2:1-5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습니다(고전 2:2).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며 탁월합니다. 선교는 복음을 탁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선교와 하나님 관점의 선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 불렸을 뿐입니다(행 11:26).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교리’를 기준으로 범주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제자도’와 연결됩니다. 제자는 ‘교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 안으로 데려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교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주하신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만이 변화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두 시간의 예배와 교리적 지식을 위해 값비싼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선교는 제자로서의 삶을 누리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6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교하고 있습니까?

- ① 복음 자체의 능력과 탁월함을 믿고 있습니까?
- ②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